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6, 신학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다양한 해석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원래의 역사적 맥락 내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저자와 저자의 예상 의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독자가 텍스트를 보면서 무엇을 가질 수 있거나 파악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텍스트와 그 맥락은 해석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며, 중요하고 중요한 단어의 표현과 의미, 문법 구조 등을 살펴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석 과정의 더욱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신학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활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체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 해석학 또는 신학적 해석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신학적 성격과 해석 사업의 신학적 성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해석의 일부는 구약과 신약의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영감을 받은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한다는 사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단순한 역사적 문서 그 이상입니다. 이 책들은 특정한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고 생산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신학적인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부를 때 성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면, 이는 성경이 종교적인 책이라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록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 문서로 읽을 수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이 성경, 즉 교회를 위한 성경임을 고백한다는 인식을 수반합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도 우리가 신세계성경 본문을 신학적 맥락 내에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책으로 결합되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경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성경은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주어진 구약의 책을 이해해야 하는 전체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궁극적인 맥락, 우리는 책의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맥락은 정경의 맥락, 즉 정경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가 성경의 정경과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한 66권의 책을 정당화하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해석의 맥락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해석을 위한 궁극적인 맥락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책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함께 모여 해석의 궁극적인 맥락을 제공하므로 신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교회의 경전임을 고백하며, 따라서 모든 텍스트를 궁극적인 신학적 정경적 맥락에 비추어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신학적으로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주제나 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문학 장르와 역사적 배경, 본문에 나오는 역사적 문화적 참고 사항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문학적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가정합니다. 맥락과 저자가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과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가장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맥락 내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는 본문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하거나 성경의 신학적 분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묻고 구약 본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신학적 관점에서 신약성서 본문을 본다. 우선, 신학적 관점은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초점을 맞추므로써 우리는 성경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인 정경이 더 넓은 신학적 맥락을 형성하고 각 신약이나 구약의 문서를 이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신학적 통일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은 각 책이 속하는 더 넓은 신학적 통일성을 제공하며, 구약과 신약의 한 책이 속하고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일관된 묘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을 정경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의 대부분은 성경이 신성한 책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감을 논의할 때 그 개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인간의 문서로 이해하면, 우리는 성경이 그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개별 책은 그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다양한 문학적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글을 쓰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다양한 어휘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신학적 분석을 하면 구약과 신약의 본문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폴과 야고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양성이 존재하고 관점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라는 더 넓은 신학적 통일성 안에서는 모순되는 관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자와 문학적 유형, 배경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문서, 특히 신약성서 문서는 우리가 본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들의 반응은 역사상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더 넓은 표준 내에서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관점이 포스트모던 트렌드와는 대조적이며, 다양하지만 모순되기까지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고, 다른 모든 목소리를 설명하는 메타 관점이나 메타 스토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해석 내에는 여러 가지, 심지어 모순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구약과 신약의 정경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본 신학적 접근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최종 정경인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증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고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관해 방금 논의한 것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주제 또는 원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정경 관계를 고백하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가 소유한 성경은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맥락을 제공하며, 우리가 소유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결합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최종적인 절정의 계시를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관점은 히브리서 1장과 저자가 말하는 처음 두 구절과 같은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과 수단을 통해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관계, 온전한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서 약속된 것과 기대되는 것의 궁극적인 성취, 성취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구속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구성된 통일성으로 읽을 때, 이는 모든 텍스트의 해석을 전체적인 주제나 주제들에 민감하고 연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성경 본문과 성경 정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뿌리를 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결정하시고, 땅을 은혜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돌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을 전파하고, 그분의 영광을 온 땅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나 인류에 대한 욕망이나 의도에 죄가 어떻게 개입하여 그것을 파괴하거나 이야기의 해당 부분을 풀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집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사 성전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관계를

세우시며 결국에는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의도가 본연의 뜻이었느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이스라엘 나라 자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의도를 확립하고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창조 시에 시작되었고, 구속과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세우심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워진 땅과 새로워진 하늘에서 궁극적인 절정에 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하고 완전하게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포괄적인 내러티브, 또는 포괄적인 이야기, 또는 이러한 포괄적인 신학적 주제를 고려할 때, 신학적 해석은 각 부분이 어떻게 이 전체에 적합하고 기여하는지 묻습니다. 성경 책이나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 신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다른 책들,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그분의 백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입니다.

각 텍스트는 어떻게, 각 책은 이에 어떻게 기여하고, 해당 이야기의 주제에 부합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약은 궁극적으로 구약의 관점에서 읽혀지지만, 더 나아가 구약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우리가 구약성서를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지 않고, 그것이 원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묻고, 본문이 역사적 맥락에서 그 자체의 온전함과 이해를 갖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신학적 관계의 궁극적인 맥락에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비추어 신약을 읽는 것이 타당하며 그 움직임의 타당성은 다소 분명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의 사용과 신약 저자들 자신을 살펴보았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새 계시가 구약 계시의 빛과 연속성을 통해 성취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구약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마친 후에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학적 해석은 적어도 지금까지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 즉 더 넓은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개별 책을 해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통일성을 형성한다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구약 정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신학적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각 텍스트의 고유한 기여를 무시하지 않으며, 각 개별 저자가 역사적 맥락에서 만드는 고유한 기여를 무시하거나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텍스트가 첫

번째 독자에게 어떻게 기능했는지 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각 텍스트는 더 큰 표준 전체의 일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성경의 마지막 정경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관계로 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대신하여 진행 중인 구속 활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에서 본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말했듯이 더 넓은 교회법적, 신학적 맥락에서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역사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와 피조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이야기의 일부로서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맥을 생각할 때, 성경을 그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더 넓은 문학적 맥락을 검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학적인 맥락, 즉 더 넓은 성경 정경의 맥락에 비추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세 번째 중요한 원리 또는 주제는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다루심의 초점, 즉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온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활동의 절정의 성취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중요한 이야기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정점을 찾습니다.

우리는 특히 신약에서의 구약의 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해석하는 주요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성취로 보았으며 아마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서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혹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대화하신 내용, 성경의 모든 것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논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절정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됨.

그래서 신약성서의 저자들조차도 구약성경의 본문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비추어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신학적 분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음, 부활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첫 번째 구절을 열 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 구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도록 요구합니다. 구약성서, 적어도

마태복음에 비추어 보면 구약성경에 비추어 읽을 것을 요구하지만,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서의 주요 이야기의 성취라고 가정 합니다.

그래서 1장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과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세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아마도 창세기의 자료나 창세기의 유사한 언어, 기원 또는 시작을 회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시작하는 창조로 시작하는 구약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국, 즉 그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선택되어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나라에 축복이 될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더 넓은 이야기 안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부터 다윗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넓은 이야기의 주요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고 의도한 목표와 절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이행하시는 진정한 다윗 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희생과 희생 제도를 성취하는 궁극적인 희생으로 간주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를 너무 많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저자가 예수님이 단번에 구약의 제사를 단순히 폐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단번의 제사임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을 진정한 목표와 의도, 그리고 성취에 이르게 합니다. 그분은 다시 말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약과 다른 대제사장 계열로 묘사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과 7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저자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는 너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구약성경 이야기의 구약성서적 특징을 끌어냈고, 이제는 그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유월절 양입니다. 그분은 또한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과 37장과 같은 구약의 예언 본문을 성취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약속된 새 언약을 가져오십니다.

그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새로운 탈출을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그분의 부활은 구약에 약속된 것이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65장과 같은 본문에서 예견된 새로운 창조를 친히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이미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본문은 그 자체의 완전성을 갖고 있으며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와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대한 신학적 분석은 성경을 읽고 본문을 기독교론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기독교론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거친 우화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약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것을 읽어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취이자 궁극적인 계시이신 더 넓은 정경적 맥락 내에서 주어진 텍스트와 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에게 그것은 옛 언약 아래서 그의 계시를 절정에 이르게 하고 성취시킨다. 네 번째 원칙이나 주제는 성경 해석, 구약성서 해석에 대한 정당한 신학적 접근이 해석에 있어서 역사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고백하고 영감을 논의할 때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구원을 위한 역사 속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을 완화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션에서 역사적 비판적 접근 방식 또는 역사적 비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비평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현대적, 문학적,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 대한 신학적 분석은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여지를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위한 여지를 두어야 하며, 성경의 보편적인 의미를 위한 여지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 비평을 누그러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한 단순한 예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역사적, 보편적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며, 그의 부활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성육신하셨음을 고백하며, 성경의 이야기는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구약과 신약성서 전체에 걸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증거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닫힌 연속체로 성경을 읽고 현재와 유사하지 않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신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일부 역사적 비평적 접근 방식과 달리, 다시 구약성서 본문을 읽는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관점에서 신약성서와 역사비판적 접근,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다루심에 초점을 맞추는 가치를 옹호하거나 고백하는 동시에, 신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증함으로써 역사비평을 누그러뜨립니다. 역사의 일들에 개입하고 행동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육신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역사적 사건에 행동하시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도 완화됩니다. 역사적 접근 방식, 특히 문학 비평이 텍스트의 문학적 차원만을 고려하고 이를 역사적 사건과 연관시키기를 거부할 때, 신학적 접근 방식은 단순한 문학적 접근 방식, 또는 저자와 텍스트, 저자의 의도, 역사적 맥락을 평가절하하는 접근 방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포스트 모던 접근 방식과 같은 배경, 그리고 다시 문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유형의 접근 방식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하더라도 본문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비추어 수정되거나 최소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다루면서, 아무리 많은 문학 비평이 본문의 미학적 가치와 본문의 문학적 차원에 우리의 관심을 끌더라도, 신학적 분석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이 해석에 있어 교만을 징계하고 우리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밝히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 세계의 창조자이자 통치자로서 역사상 강력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과거 역사 속 하나님의 행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분석은 역사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신학적 분석할 때, 신학적 분석은 성경 자체의 주요 주제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적 분석은 성경 본문의 해석에서 비롯된 성경 자체의 용어와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용어 중 일부는 창조, 언약, 용어 또는 주제, 창조, 언약, 약속, 축복, 심판, 구속, 왕국 또는 왕권, 성전, 신앙, 제사장 직분, 화해, 칭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용어와 주제이며, 구약과 신약의 신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신학적 분석은 성경 본문 자체와 이 중요한 이야기의 용어와 주제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학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성경의 주요 가르침을 분류하거나 요약하는 데 주로 기능하는 조직신학적 범주, 즉 더 넓은 범주를 사용하는 조직신학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철학적 탐구의 범주와 기타 범주를 사용하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본문 전체와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그러한 범주에 대해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조직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범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직신학 교과서나 조직신학을 말할 때 생각하는 종류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는 주로 더 큰 성경의 신학 본문과 중요한 이야기,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와 용어부터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이러한 주제를 추적하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인식합니다. 신약성서와 본문을 통해 각

책이나 본문이 해당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해당 주제나 용어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신학, 즉 성경 본문에 대한 신학적 분석은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용어와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텍스트 자체가 무엇에 기여하는지,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와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 정경에서 증언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본문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신학적 분석은 해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글썄,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 본문에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고, 저자의 가능한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묻는 것입니다. 본문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배치하고, 본문을 검토함으로써 더 넓은 문학적 맥락에 비추어 본문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어휘와 문법도 검토하고, 본문을 고유한 용어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해석 원칙, 즉 건전한 해석은 신학적 분석의 첫 번째 단계, 토대, 기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즉 제가 제안하고 싶은 두 번째 단계는 본문에서

주요 신학적 주제를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연구하면서 내가 이미 제시한 주요 주제, 즉 주요 용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 축복, 믿음, 칭의, 화해, 왕권, 구속 등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나 용어. 때로는 신약에서 구약이 어떻게 인용되거나 암시되는지는 주요 신학적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약성서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세션에서 신약에서의 구약의 사용에 대해 논의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학적 분석을 하고 있었고, 신약성서 본문이 어떻게 구약성서 본문과 그 주제들을 선택하고 전개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십시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주요 신학적 주제를 파악한 다음, 그것이 당신의 본문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구약이나 신약의 본문이 이 주제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그리고 이 주제는 당신이 해석하고 있는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기능합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제 중 일부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구약 또는 신약 신학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제를 다른 책에서 분리하거나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등장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이 텍스트에 무엇을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주제가 등장하고 다루는 역사적 배경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본문이 창조물과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이야기의 더 넓은 정경적 설명이나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습니까? 당신의 텍스트가 그 이야기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어디에 적합합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심으로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절정에 달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서 당신의 본문이 그 이야기에 들어맞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텍스트는 그 안에 어디에 들어맞나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약의 이야기에 비추어 신약을 읽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구약도 신약의 관점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구약성서가 그 자체의 완전성을 갖고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넘어서서 더 넓은 정경적 맥락에 배치하고 마침내 어떻게 구약성경이 의미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비록 이것이 성경 본문의 해석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본문이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교회의 더 넓은 신학적 성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인 조직신학은 전자에 기초하여 본문을 그 자체의 용어로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학, 즉 조직신학은 일반적으로 교회

신앙의 일관된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문제에 비추어 성경의 가르침, 즉 성경의 전체 가르침을 일관된 틀로 체계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초점은 흔히 성경신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즉,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주제와 용어에 비추어 본문을 검토하는 동시에 본문을 더 넓은 성경 신학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구속적으로 다루십니다.

이제 말씀드렸으니, 성경 본문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의도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가지를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신학적 측면은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본문의 신학적 차원 중 일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은 우리가 이미 다른 곳이나 토론의 다른 맥락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본문 모두 신학적 분석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예와 유용한 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7장인데, 특히 14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주변의 몇몇 구절에도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과 14장. 더 넓은 맥락에서 사무엘하 7장은 선지자 나단이 메시지, 즉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며, 그 중심에는 보통 14절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언어는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선택되지만 이것의 전체 맥락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며, 그의 관계를 확립하려는 그의 의도를 확증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있으리라

자,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지침을 따르기 위해 본문을 보면 성전과 같이 신학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7장 앞부분의 일부 구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곳인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짓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사무엘하 7장은 성전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왕권, 특히 다윗 왕조의 언어. 7장 14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발견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언어는 언약 언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의 씨와 자손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성경신학적 주제나 용어입니다. 또한 이 본문의 중요한 측면이 13절과 16절 모두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3절, 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르되, 네 씨는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리라.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윗 왕조의 왕권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보좌가 있을 것이며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비록 계승이 있더라도 항상 왕좌에 왕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지, 아니면 왕위를 계승할 한 왕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신을 통치할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성전의 이러한 주제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 왕권, 특히 다윗의 군주제, 다윗의 왕권,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의 씨와 후손에 대한 강조, 다윗의 영속적이고 영속적인 왕권과 보좌를
살펴보면 이것이 어디에 적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모든 창조물을
다루시는 더 넓은 표준적 이야기 속에서? 우선, 본문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암시 중 일부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9절에서
이러한 연결이나 암시 중 일부를 주목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노라., 그리고 나는 네 앞에서 네 모든 적들을

멸절시켰다. 이제 내가 네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크게 만들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궁극적으로 너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인 12절에서는 자손이나 씨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12절,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자손 곧 네 자손을 세울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와 그의 후손이 많을 것에 관해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이제 그 씨나 자손은 다윗 왕권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10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는 아마도 아브라함을 땅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영하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저자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다윗의 약속과 다윗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취되고 확립되는 주요 수단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이야기에 비추어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사무엘하 7장은 비록 미묘하더라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에덴동산의 언어를 집어낸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고, 그들이 자기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이다. 아마도 그 심는 이미지는 에덴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그 땅에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과 땅을 주어서 그것을 돌보고 살게 하신 성취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들은 죄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운 선물로 그 땅을 주신 창조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땅에 사람들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계속됩니다. 왕권이라는 언어,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서 다윗의 보좌와 그의 통치를 영원히 확립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히 창조의 궁극적인 성취로 여겨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언약과 다윗 왕과 군주제는 인류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될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이 이야기 안에 서서 다윗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창조와도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제공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또한 사무엘하 7장이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의 많은 배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에 호소하지 않고 이사야 9장과 이사야 55장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예언문을 언급하지 않고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릴 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약속이나 다윗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옮기기 위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왕좌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국을 선포하고 그것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다윗의 언어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14절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그의 백성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다윗의 자손을 갖는 궁극적인 의도를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백성들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1장의 새 창조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이것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두 곳을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됩니다.

2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단어들을 찾습니다. 6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다윗 언약의 형식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도 다윗의 언약에 참여하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창조본연의 뜻입니다. 이제 그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다윗 언약에 참여하고 새 창조를 다스리는 절정에 이르렀 습니다 . 따라서 사무엘하 7장은 창조, 언약, 다윗의 왕권, 군주제, 씨,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전과 같은 여러 성경적 주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 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구원의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신학적 주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이야기에 어떻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응용을 만드는 것,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맥락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